

현단계 우리 학교도서관의 변화와 도전*

Change and Challenge of School Library in Korea

김 종 성(Jong-Sung Kim)**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3. 사서교사 신규 임용 |
| II. 변화의 바람은 어떻게 왔는가? | 4. 학교도서관 교육 및 연수 강화 |
| 1. 7차 교육과정의 시행 | IV. 변화에 내재된 도전과 과제 |
| 2. 시민단체 주도의 학교도서관 운동 | 1.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은 바르게 가고 있는가? |
| 3. 사회적 의제로 자리잡은 독서 담론 | 2. 사서교사는 충실하게 양성되고 있는가? |
| III. 변화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 | 3.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문제의 해결방안은 있는가? |
| 1. 정부의 학교도서관 정책 지도력 형성 | V. 나오며 |
| 2. 학교도서관 현장의 개선 | |

초 록

이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배경과 그 성격, 그리고 그 양상 속에 내재된 과제에 대해 분석적으로 밝혀낸다. 논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립하여 시행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의 탄생 배경과 그 영향, 그리고 그 한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연구자는 현재의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여러 가지 도전의 요소가 잔존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야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정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정책, 사서교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hange of school library in Korea. The writer keeps an eye on the 'School Library Activation Project'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writer concludes by pointing out some problems of school library in Korea at its present developmental stage.

Key Words: school library, school library policy, school librarian

* 이 논문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하계학술발표대회(2003. 6.27-28, 전남대학교)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kjs1010@kmu.ac.kr)

• 접수일 : 2003. 8. 14 • 최초심사일 : 2003. 8. 15 • 최종심사일 : 2003. 8. 20

I. 들어가며

학교도서관이 변하고 있다.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변화의 기류는 분명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변화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지만 혹자는 혁명적이라는 평가도 서슴지 않는다. 이 변화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 보아도 알 수 있고 각종 지면과 화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조용한 대학의 캠퍼스에 앉아 있어도 이 변화의 소식은 들려 온다. 분명히 학교도서관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의 실재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언론에 소개된 학교 현장의 그림 몇 편을 들여다보자.

‘경기도 안산 성포초등학교 3학년 사회수업 시간. 아이들이 교실을 떠나 학교 중심에 자리잡은 도서관을 찾는다. “모둠별로 역사소설을 하나 선택해 읽고, 등장인물에게 시대 상황이나 배경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편지로 물어보고, 모둠의 다른 친구가 답장해보기”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아 공부하는 날이다. 읽어야 할 역사소설은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가 추천해 놓은 도서정보를 읽고 선택해 놓은 상태다. 어떤 모둠은 전자책으로 이미 줄거리를 읽었으며, 어떤 모둠은 도서관에 도서대출을 예약해 놓은 상태다. 단순히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야 할 정보도 많다. 아이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¹⁾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작고 아담한 도서관이 있다. 작년에 개관한 이 도서관은 몰려드는 아이들로 연일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룬다. 하루 평균 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도서관을 이용한다. 도서관을 찾아온 학생들의 모습은 매우 진지하다. 서가에서 책을 고르는 아이,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있는 아이, 컴퓨터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있는 아이, 교과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아이, 오디오로 음악을 듣고 있는 아이, 비디오로 학습자료를 시청하는 아이, 세미나실에서 토론하고 있는 아이 등 각자의 관심에 따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아이들로 가득 찬 도서관을 보는 것은 실로 벽찬 감동이 아닐 수 없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다. 아이들 스스로 도서관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대출되는 도서는 월 평균 3,000권 안팎이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의 독서량은 월 평균 8권이 넘는다. 한달 동안 무려 29권의 책을 읽은 학생도 있다.’²⁾

‘안양 신성중·고등학교 도서관은 아이들한테 ‘행복한’ 공간이다. 빼곡이 꽂혀 있는 많은 책들이 아이들을 항상 기다린다. 대개 새 책들이다. 도서관 시설도 좋다. 3층 건물 전체가 도서관이다. 1·3층은 열람실이고 2층은 정보의 ‘보고’인 정보자료센터로 꾸며져 있다. 공공도서관 부럽지 않은 시설이다. 정보센터에는 3만 5천권의 단행본, 75종의 잡지 등

1) 「[IT 교육시대](3)디지털 학교도서관」, 한겨레, 2003. 3. 3.

2) 최진규. “<기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로 교육과제 풀자,” 경향신문, 2003. 6. 7.

모두 4만여권이 서고를 채우고 있다. 또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자료도 2500종에 이른다. 오디오·비디오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모든 자료가 전산화돼 있어 학교 밖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중략) 아이들은 도서관을 즐겨 찾는다. 중·고등학교 3천명 가운데 하루에 250명이 도서관을 이용한다. 하루 대출되는 책도 100권이 넘는다. 아이들을 위해 방과후에도 문을 연다.’³⁾

‘전주시내 대표적 기피 학교로 꼽혔던 전주남중. 그런 학교가 최근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면학 분위기가 살아나고, 학부모와 주변 지역민들의 학교에 대한 인식도 크게 좋아졌다. 이 학교가 크게 달라진 중심에 학교도서관이 있었다. (중략) 이 학교를 찾았을 때 두 개의 도서실 모두에서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 도서실에서는 10여명의 학생들이 프로젝션 티브이를 통해 영상 교육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고, 다른 도서실에서는 신문제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으로 기사 쓰기 지도를 받고 있었다. 최근 각 언론에 게재된 동남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스’ 기사를 놓고 지도교사의 설명에 이어 기본적인 글쓰기와 사건을 보는 시각 등에 대해 학생들의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중략) 도서실 이용률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눈에 보이는 대표적 효과. 점심시간 때만 하루 평균 1백 여명의 학생들이 도서실을 찾고 있으며, 하루 도서 대출 건수도 30~40권에 이른다. ‘오늘 도서수업 안 하느냐’고 성화일 정도로 도서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도 높아졌다. 실제 14일 월요일 이 학교의 6교시 수업 중 5교시가 도서실 수업으로 짜여져 있었다. 국어, 사회, 심화보충, 재량, 진로교육 등의 수업이 도서실에서 이루어졌으며, 5교시에는 시간이 겹쳐 조정됐을 정도다.’⁴⁾

소개한 기사를 통해 우리 학교도서관에 불어오는 변화의 실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자 학생들의 이용이 늘어나고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의 환경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상황이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 이러한 변화는 어떤 큰 조류를 이루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 구체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조류가 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리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학교도서관의 현실이 워낙 오랫동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그 열악성의 기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학교도서관 현장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담론의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고발도 빈번하다는 사실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⁵⁾ 요컨대 현재의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내포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 결과적 성취에 대해 선부른 전망을 내어놓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즐거운 학교/재미있는 수업](9)학교도서관 모범 사례,” 한겨레, 2001. 8. 13.

4) “[즐거운 학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모범 ‘전주남중,’” 전북일보, 2003. 4. 15.

5) “[사설] 사서교사 없는 ‘속빈 강정’ 도서관,” 새전북신문, 2003. 3. 26; “학교도서관 활성화 공염불,” 중부매일, 2003. 4. 4.

이런 점에서 학교도서관을 정점으로 한 이 변화의 계기와 배경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을 성찰해 보는 것은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우선 지금 학교도서관 현장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주요한 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변화라고 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이러한 변화에 내재된 도전과 과제는 무엇인지 심도 있게 탐색해 보려고 한다.

II. 변화의 바람은 어떻게 왔는가?

현재 학교도서관에 불고 있는 변화의 시초와 발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름지기 모든 사회적 변동의 연원과 배경은 점진적이며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책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새로운 움직임을 학교도서관 운동의 회복을 예고하는 조짐으로 제시한 바 있다.⁶⁾ 1970년대 이후 침체기에 들어섰던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이 1990년대의 교육개혁 기운 속에서 변화의 단초를 만들어 가기 시작한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주요한 사회적 의제가 된 것으로서 현재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주요한 변화의 계기와 배경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정보화에 대한 범국가적 열정, 교육개혁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 등의 현상들이 이 시기에 사회적 담론과 정책의 주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학교도서관 변화의 계기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배경과 계기를 찾아보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학교도서관 변화의 동력과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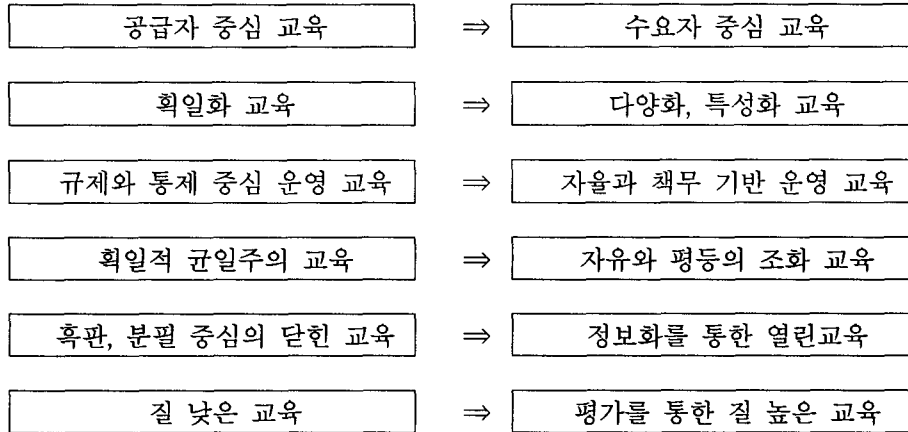
1. 7차 교육과정의 시행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우리 교육 당국은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적 요구를 담아 7차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시행하게 된다.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모토를 전면에 내세운 7차 교육과정은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을 목표로 하고 세계화·정보화를 주도할 자기주도적 능력의 신장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이라는 운영 원리와 지역 및 학교 교

6) 김종성, 한국 학교도서관 운동사(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0).

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라는 제도를 지향한다.

7차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점에서 종래의 교육과정과 다른 성격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교육의 성격 변화의 내용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⁷⁾



〈그림 1〉 7차 교육과정의 교육 성격

7차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교육과정 개선의 원칙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7차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새로이 수립되고 시행되었으며 기왕에 시행되던 정책들도 더욱 강화되었다. 가령 열린교육, 수행평가, 독서교육, 정보화교육 등이 강조되고 보편화 된 것은 7차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과 지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960년대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배경도 학생 중심, 경험 중심, 자료 중심의 새로운 교육 방법과 내용이었다는 사실에 미루어 볼 때 현재 학교도서관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은 새로운 교육의 지향과 방법을 표방하는 7차 교육과정에 크게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사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학습이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자료와 경험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그 과정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고양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패턴을 실시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자료와 학습 매체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문가와 공간이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다. 바로 학교도서관의 필요성과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강조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라 학교도서관

7) 교육부, 7차 교육과정(서울: 교육부, 2000), p.3.

에 조금씩 변화의 힘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6차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교육목표	평균적 인간 양성 (핵심적 지식전달 중심)	독창적, 창의적 인간 양성 (사고력, 창의력 육성 중심)
교육내용	단편적 지식 중심	다면적 사회 적용 지식 중심
교육방법	교사 중심 지식 전달	학습자 중심 탐구활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 강조
평가방법	지필 위주의 평가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

2. 시민단체 주도의 학교도서관 운동

과거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학교 안의 인적 요소에 의해 주도된 반면 1990년대 이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된 것이 한 가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현상이면서 교육의 객체로만 머물던 세력이 이제는 교육의 주체로서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주도한 학교도서관 운동으로서 그 규모와 본격성에 있어 두드러진 것은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이다. 이 운동은 특정 지역의 영역 속에서 전개된 운동이었지만 그 영향은 전국적이었으며 현재의 학교도서관 운동에서 많은 성과를 자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주체인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협의회’가 결성된 것은 1999년 12월이지만 이 운동의 태동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96년 수원 여성회의 ‘수원시민 대토론회’와 같은 활동에 두고 있다.⁸⁾ 1998년 수원여성회에서 공공근로의 형식을 빌어 사서를 파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학교도서관 현장 개선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9년까지도 이 운동은 안산, 군포 등의 지역에 한정되어 지역의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운동을 이끌어 가는 형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99년 말에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협의회’가 구성되고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직적인 면모를 강화해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하여 본격화 된 이 운동은 2000년, 2001년, 2002년 3개년에 걸쳐 매년 그 대상 지역과 파견 사서의 수를 늘려 가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 운동의 주요한 경과를 정리하면 <표 2>과 같다.

8) 한옥자,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 진행과정과 향후과제,”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협의회 1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수원: 동협의회, 2001), p.34.

〈표 2〉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주요 일지

연도	주요 사업 및 경과	운동의 외적 성과
1996	수원여성회, 수원시민대토론회 개최-학교도서관 문제 제기	
1998	수원여성회, 공공근로사업으로 학교도서관 사서파견 사업 시작	
1999	-안산 상록수 문화 사랑회, 학교도서관 전산화 지원사업단 구성, 사서파견(3월) -군포 경실련, 학교도서관 전산화 지원사업단 구성, 사서파견(5월)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협의회' 결성(12월)	
2000	-지역: 4개 지역: 수원, 군포, 안산, 안양 -예산: 5억 -파견 사서 인원: 82명(82개교)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 출범
2001	-지역: 7개 지역: 4개지역 + 의정부, 안성, 성남 -예산: 18억 -파견 사서 인원: 132명(132개교)	교육인적자원부 내 학교도서관 담당부서 설치
2002	-지역: 경기도 전역 -예산: 24억 -파견 사서 인원: 180명(180개교)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 발표
2003	운동의 주체 지방정부 출연기관으로 이관	전국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시작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리더십에 의해 시작된 이 운동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등에 업고 학교도서관 현장 개선에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리고 이 운동은 언론과 사회 단체, 정부의 관심과 조명을 받으며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데 크게 공헌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 운동의 성과는 학교도서관 운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정부의 정책적 조치를 유도해 내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자극하였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운동을 주도한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인 학교도서관 운동 단체인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를 출범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 지평의 확대는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탄생하게 하였으며 이 조직이 중심이 되어 현재 학교도서관 현장의 변화를 초래하는 정부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경기도의 학교도서관 현장을 개선하는 일에서 머물지 않고 그 에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을 자극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정부로 하여금 학교도서관 사업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현장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한 지역의 시민 단체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다소 우연한 조건 속에서 시작된 학교도서관 개선 사업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구체적이며 제도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변화를 추동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된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은 현재 학교도서관 영역에서 일고 있는 다양한 변화의 계기와 배경으로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⁹⁾

3. 사회적 의제로 자리잡은 독서 담론

학교도서관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교육계의 주목을 이끌어 낸 또 하나의 배경은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독서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독서에 대한 관심의 확산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학교 교육에서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송 매체를 필두로 한 언론에서 형성한 독서 캠페인이다. 이 두 가지 차원의 독서 담론이 큰 틀 속에서 사회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다.

1) 학교 교육에서 독서 교육론의 부각

학교 교육에서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부각된 것은 무엇보다도 대학입시 유형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교과서 위주의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게 하고 객관식 문제를 통해 성적을 평가하던 형태에서 통합적인 사고와 탈교과서적 지식을 요구하는 수능시험 형태로 바뀌으로써 독서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독서 행태가 다분히 학습 독서와 기능적 독서로 편향되는 현상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주요한 학교의 독서 환경인 학교도서관에 주목을 하게 만든다. 학교도서관의 낙후성과 불구성에 대한 고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 개선의 절박성이 대두된다.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제도의 후진성과 현장의 열악성에 대해 통탄하고 그 개선의 길을 다양한 방향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험능력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학교 현장의 독서 분위기 확산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학교도서관 개선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 TV가 만들어 낸 독서 열풍

입시 행태의 변화에 따라 교육계 안에서 확산된 독서 교육론이 학교도서관 현장의 낙후성을 지적하고 산발적이거나 현장 개선의 성과로 연결된 것이 특징이라면 방송 매체가 주도한 독서 담론은 독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언론에서 독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01년

9)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운동이 현재 우리 학교도서관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정치한 분석과 조명이 요구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필자는 별도의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이 과제를 정리할 필요를 절감한다.

3월 초 KBS는 ‘TV 책을 말하다’라는 제목의 독서 다큐멘터리를 이틀에 걸쳐 방영하면서 본격 독서 프로그램의 막을 올렸다.¹⁰⁾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기대 속에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는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¹¹⁾

KBS의 독서 프로그램이 장중하게 등장하여 진지한 모습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을 때 MBC에서 다소 의외의 형식을 빌어 독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통념을 깨고 오락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개그맨 사회자들에 의해 책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책을 희화화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의 파괴력은 엄청난 것이었다. ‘의미 있는 오락’을 추구하는 프로그램 제작자의 의도에 맞게 시청자들은 웃으면서 책을 받아들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책은 예외 없이 단기간에 초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판매 수익도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의 위력은 전국적인 독서 열풍을 조장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표 3〉 TV 독서 프로그램 수용 현황(단위: %)

영역	문항	성 인					학 생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초	중	고	
TV 독서 프로그램 시청률	본 적 있다	67.6	78.2	78.0	64.5	40.7	87.7	83.4	91.0	88.7	
	본 적 없다	32.4	21.8	22.0	35.5	59.3	12.3	16.6	9.0	11.3	
TV 독서 프로그램 시청후 독서 행태 변화	TV에서 소개된 책을 읽었다	가	50.6	56.1	55.6	44.4	30.5	69.4	68.3	72.9	66.7
		부	49.4	43.9	44.4	55.6	69.5	30.6	31.7	27.1	33.3
	다른 책도 찾아 읽었다	가	38.6	39.3	40.9	40.1	28.6	49.5	63.9	48.4	37.2
		부	61.4	60.7	59.1	59.9	71.4	50.5	36.1	51.6	62.8
TV 독서 프로그램 평가	마음에 든다	26.5	27.2	24.3	30.3	24.8	47.8	53.8	46.9	43.1	
	마름에 드는 편이다.	56.2	58.0	58.3	52.8	50.5	36.8	30.6	37.6	41.7	
	그저 그렇다	16.6	13.8	17.4	16.2	23.8	13.0	14.5	13.1	11.5	
	마음에 들지 않는다						1.0	0.4	0.9	1.6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0.6	1.0	0.0	0.7	1.0	1.5	0.7	1.5	2.1	

10)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독서 문제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다룬 최초의 본격 독서 문화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영상 자료를 여러 독서관련 강의에서 강의 보조자료로 활용하곤 하는데 현단계 우리 사회의 독서 문화의 문제와 그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해준다. “TV, 책을 말하다,” KBS ITV 방송 프로그램, 2001. 3. 3·4.

11) 한 도서평론가는 텔레비전이 ‘왜 느닷없이 책을 말하는가?’라고 질문한다. 그는 이런 현상을 두고 텔레비전이 책의 가치를 새삼스럽게 조명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그 배경으로 이 새로운 시대가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말하자면 영상 미디어가 각광받는 시대에도 진정으로 독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매체는 책이라는 것을 영상매체가 스스로 공인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권우, “미디어의 독서운동, 현황과 과제,” 제 40회 전국도서관대회 발표자료, 2002. 9. 26-29, 대구전시컨벤션센터.

<표 3>에 서 알 수 있듯이 실제 TV 독서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시청후 독서행태 변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방송 프로그램이 독서 분위기 고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전국의 성인 남녀 1,200명과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성인, 학생 할 것 없이 TV 독서 프로그램을 호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²⁾ 이 데이터를 통해 TV 독서 프로그램이 국민들의 독서 의식 고취와 독서량 증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다. 급기야 이 프로그램은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프로젝트를 내어놓았다. 방송 프로그램의 위력을 활용한 독서 프로모션의 과정에서 생긴 잉여금을 모아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다. 바야흐로 독서 열풍이 도서관 열풍으로 옮겨가는 장면이다. 책을 들고 까불거리던 프로그램의 사회자들은 이제 도서관을 열고 전국을 누빈다. ‘책을 읽자’는 상투적인 슬로건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전국민을 도서관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적어도 이 프로그램에 등장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어린이 도서관의 부족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상식이 되어 버린 듯하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문제제기와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나타난다. 전문 지식으로 도서관을 종류별로 나누어 생각하는 관성과 무관한 일반인들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열망을 자연스럽게 학교도서관으로 전이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내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형성된 독서 교육론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확산된 독서 열기가 융합되어 사회 전반의 독서 담론을 고조시키게 되고, 이러한 독서 담론은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자극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Ⅲ. 변화의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

교육 개혁 운동의 한 영역으로 학교도서관 개선 운동이 전개되고 학교 현장과 사회 전반의 독서 담론이 고취되면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1. 정부의 학교도서관 정책 지도력 형성

학교도서관의 변화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정부당국에서 학교도서관을 지도하는 정책적 리더십이 형성된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은 중앙집권적 교육 체제에서는

12) 문화관광부, 2002년 국민독서실태조사(서울: 문화관광부, 2002), pp.109-110, 172-173.

중앙 교육행정당국의 장학체계와 리더십은 바로 학교 현장의 개선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이 변화는 현행의 학교도서관 변화에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1)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 부서 설치

우선 학교도서관 정책 지도력 형성의 첫 요소는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생겼다는 것이다. 2001년에 인적자원정책국 산하에 조정2과를 두어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¹³⁾ 학교도서관 업무는 이 과에서 담당하는 9가지 업무중 1가지에 불과했지만 학교도서관 업무의 소관부처가 생긴 것만으로도 획기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중앙 교육행정당국에 학교도서관 영역을 업무 분장 내용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그 소관을 명확히 한 전례가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 같은 조치는 혁명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조치는 단순히 학교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가 생겼다는 차원을 넘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중앙의 교육행정당국에서 학교도서관이라는 영역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일상적인 책무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학교도서관 영역이 최상위 교육행정당국의 무관심과 홀대 속에서 소관부처도 없이 방치되어 왔지만 이제는 일상적인 장학 활동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⁴⁾

2) 국가수준의 학교도서관 정책 수립과 시행

그리고 담당 부서의 등장과 맥을 같이하는 성과로서 전면적인 학교도서관 개선 사업을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된 것을 들 수 있다. 2002년에 발표된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 그것이다.¹⁵⁾ ‘건국이래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입안한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¹⁶⁾이라는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정책은 그 존재 자체로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 정책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의 학교도서관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13) 2003년 8월 단행된 교육인적자원부 기구개편에 따라 조정2과에서 관장하던 학교도서관 업무는 국제교육정보화국 산하 교육정보화 지원과로 이관되었다.

14) 과거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도서관 업무의 주무부서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느 부서에서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18년 전에 학교도서관 문제를 다룬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기자는 교육부내의 이 방 저 방을 탁구공처럼 튕겨 다니다가 결국 학교도서관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도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무부서 찾기를 포기했다. 이런 상황은 2001년까지 변함이 없었다. 다음 두 자료가 그것을 증명해 준다. “추적 60분-학교도서관 그 운영 실태는?” KBS 2TV, 1985. 10. 20; 김선평, “시·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정책 과제,” 제40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2), p.261.

15) 교육인적자원부,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2).

16) 김선평, 상계논문, p.262.

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및 장서 확충,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학교도서관 지원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의 네 가지 수행 과제를 설정하여 둔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상시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학교 경상운영비의 3%를 학교도서관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인 전담 전문인력 문제를 ‘구령이 담 넘어가듯’¹⁷⁾한 것이 한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책은 그 자체로서 큰 기대와 환영을 받았던 것이다.

3) 지역 교육청의 장학 활동 전개

중앙 정부의 학교도서관 장학체계 강화와 정책 시행과 별도로 지방 교육행정 당국의 장학활동과 정책 시행도 전개되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경상북도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중앙 교육행정당국에서 학교도서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 학교도서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활로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학교도서관 운영 편람¹⁸⁾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자체적인 사서교사 임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도교육행정당국 차원에서 학교도서관 영역에 대한 지도력이 확보된 경상북도의 경우 교육부가 주도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시·도교육청보다 효과적인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다.¹⁹⁾ 이 밖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장학사 1명, 사서 3명, 행정직 1명으로 구성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팀’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도교육청 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²⁰⁾

이와 같이 중앙이나 지방의 교육행정당국 차원에서 장학 체계를 확충하고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전적으로 현장의 에너지와 관심에만 의존하는 상황을 탈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학교도서관의 존립과 운명이 정책과 제도의 고려 속에서 논의되게 되었으며 현장의 개별적인 편차를 초월하는 수준으로 개선될 여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도서관 역사에서 정부 차원의 장학체계 확립과 정책 수립이 수십 년간의 숙원과제였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분명 우리 학교도서관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전기가 될 것이다.

2003년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계획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년마다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학교도서관 영역이

17) 상계논문.

18)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편람(대구: 경상북도교육청, 2000).

19)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시행을 위해 현장에서 실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적인 장학자료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현장 지도를 통해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아름다운 학교도서관(대구: 경상북도교육청, 2003).

20)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교 학교장 연찬회 자료집(수원: 경기도교육청, 2003).

포함된 것이다. 2003년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해 작성한 평가 편람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분야를 15점으로 배정하여 포함시키고 있다.²¹⁾ 이 평가 계획에 의하면 전체 평가 점수 600점 중 180점을 차지하는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공교육 내실화) 영역’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분야에 15점을 배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평가 편람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4점),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2점), 전담 관리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3점),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활성화 정도(2점), 학교도서관 또는 독서 진흥을 위한 특색사업 및 민관협력 운동 활성화(4점) 등 다섯 가지의 평가지표를 통해 학교도서관이 교육활동의 중심시설로 구축되어 있는지, 학교도서관 업무 담당자가 도서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2001년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학교도서관 영역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독서교육 항목이 1점 배정되었다는 사실에 비교해 보면 이런 변화는 괄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도서관 영역이 시·도교육청 평가에 적지 않은 점수를 배정 받아 포함되었다는 것은 중앙교육행정당국이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장학 활동을 지시하고 감독하려는 정책적 지도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결국 학교도서관 현장의 개선과 발전을 앞당기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2. 학교도서관 현장의 개선

1)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학교도서관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현장이 개선되고 활성화되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경영자나 교사, 그리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는 사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에 의해 학교도서관이 크게 개선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에 따라 2003년부터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 사업에 따라 5년간 총 6천 개의 학교도서관이 현대화될 계획이며 그 첫해인 2003년에는 총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 1,259개교의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게 된다.²²⁾ 2003년에 리모델링 되는 학교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첫 해인 2003년에 우리 나라 전체 학교수의 약 12퍼센트에 해당하는 학교의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학교에서 학교도서관 환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지

21)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 2003년 시·도교육청 자체평가서 편람(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3).

22) 인적자원정책 조정2과, “보도자료-학교도서관! 이젠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2003. 4. 9.

원하는 측면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편람을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하였다.²³⁾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서울, 전주, 대구, 대전에서 개최된 이 전시회에서는 학교도서관 모습을 실물(교실 2.5칸 규모, 초·중등 각 1개)로 구성하여 보여주는 한편, 학교도서관 축소모형(miniature), 도서목록, e-book, 학교도서관 정보화시스템 등도 전시하여 실제 학교도서관 현장을 개선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²⁴⁾

<표 4> 시·도교육청별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신청 및 선정 현황

교육청	신청교 현황					선정교 현황					경쟁율
	소계	초	중	고	특수	소계	초	중	고	특수	
계	2,645	1,258	778	607	2	1,259	633	339	286	1	2.1
서울	183	63	63	57		139	56	38	45		1.3
부산	117	33	36	48		66	24	24	18		1.8
대구	101	46	31	23	1	43	22	12	8	1	2.5
인천	117	59	34	24		47	30	12	5		2.5
광주	34	15	11	8		32	14	11	7		1.1
대전	83	38	26	19		28	12	8	8		3.0
울산	56	37	11	8		21	16	2	3		2.7
경기	485	232	148	105		223	115	56	52		2.2
강원	138	93	26	19		73	60	8	5		1.9
충북	67	34	15	18		52	29	12	11		1.3
충남	182	97	55	29	1	85	42	22	21		2.2
전북	119	53	42	24		96	43	30	23		1.3
전남	136	70	40	26		100	50	31	19		1.4
경북	625	307	174	144		131	61	37	33		4.8
경남	172	70	55	47		102	50	30	22		1.7
제주	30	11	11	8		21	9	6	6		1.4

그런데 학교도서관 현장 개선 사업은 <표 4>에 제시된 수보다 훨씬 많은 학교에서 진행되거나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진행했거나 하고 있는 학교가 적지 않은 상황이며, 시·도교육청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령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별도로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활성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학교도서관 개선의 성과를 앞당기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처럼 대규모의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

23) 교육인적자원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편람(서울: 교육인적자원부·서울특별시교육청, 2003).

24) 인적자원정책국 조정2과, 전계자료.

지는 않더라도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소간 개별적인 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모두 감안하면 학교도서관 현장 개선의 성과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교 현황

학 교	계	설치 지원교	리모델링 지원교	사서 지원교	우수사례 육성 대상교	디지털자료실 지원교
계	487	73	138	256	12	8
초등학교	275	46	64	158	5	2
중학교	119	18	35	60	3	3
고등학교	93	9	39	38	4	3

2) 학교도서관 연구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인 진전을 위해 학교도서관 연구학교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시행한다.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 명단을 보면 전국의 각 시·도 초·중·고교에 1교씩 도서관 활용 연구학교를 배정하였다.²⁵⁾ 이 프로그램에 의해 전국의 48개교가 2년간 도서관 활용 연구학교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받는 학교에서는 2년간 다양한 학교도서관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학교도서관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법과 과정을 개발하게 되고 그것을 보편화하게 하는 도움을 준다. 이런 점에서 지역별, 학교급별로 골고루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하는 정책은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해 무척 효과적이며 전략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도서관 현장이 개선된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 교수 학습 과정에서 활용되는 기제로 탈바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무용지물로 잠들어 있거나 다른 기능으로 전용되던 학교도서관이 이제 명실상부한 독서 공간으로, 교수 학습 자원센터로, 다양한 수업의 공간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당장 본질적인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초보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효용과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장의 교육 주체들은 변화된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되고 공교육 현장의 건강성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25) 2003학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 명단(신규+계속), 교육부홈페이지 [인용 2003. 7. 20].

3. 사서교사 신규 임용

학교도서관 현장 변화 요소 중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것은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서교사를 신규 임용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게 한 것은 그야말로 고무적이며 바람직한 사항임에 틀림없다. 2002년에 33명, 2003년에 45명의 사서교사를 신규로 임용하여 학교도서관 발전에 한줄기 희망의 불씨를 살려낸 것은 현재 우리 학교도서관 변화의 가장 가치 있는 성과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체 학교수에 비하면 너무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미동도 않던 사서교사 임용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특성상 환경적 조건의 개선보다도 전담 운영인력 배치의 문제가 더 중요한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는 학교도서관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03년의 경우 신규 임용자 현황이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어 사서교사 임용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사건으로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처럼 학교도서관에 소수이긴 하지만 사서교사가 배치되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독서 교육론의 여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정상적인 형태의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사서교사에 대한 수요는 더 팽창하게 될 것이다. 물론 교사총정원제라는 한계에 묶여 사서교사 정원을 쉽게 늘리기가 어렵지만 요구가 축적되면 그에 합당한 돌파구가 마련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대는 현재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2004년도 사서교사 신규 임용에 대한 계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아직 확정되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시·도교육청에서 사서교사 신규임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더욱 고무적인 것은 그 규모도 예년의 수준을 웃돌 것이라는 사실이다. 2002년과 2003년에 모두 33명의 신규 사서교사 임용을 통해 학교도서관 사업을 획기적으로 진척시킨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장기계획을 제시해 두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라 2004년에도 13명의 사서교사를 신규 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서교사 배치 계획과 전략은 타 시·도의 사서교사 배치 정책에 모델로 삼기에 충분하다. 이 계획은 한정된 사서교사 인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내 지역 교육청별로 초·중·고교에 각 1명씩 배치하여 전담 전문인력의 지도력이 도 전역에 미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배치되어 있는 사서교사는 전담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도 학교도서관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 계획과 인력 운영을 통해 경상북도 교육청은 한정된 사서교사 인원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성과를 확대하고 유지해 나가고 있다.

〈표 6〉 경상북도교육청 사서교사 배치 계획과 경과

연도	초	중	고	계	경과
1998			1	1	
2002	11	8	2	21	최초 22명 선발하였으나 1명 임용 포기, 기간제 1명 선발하여 23개 지역 교육청 사서교사 1명씩 배치
2003	5	3	3	11	10개 시교육청 증원 배치, 1차 배치 계획 완료 연도
2004	7	2	4	13	13개 군교육청 증원배치, 초등교 배치 완료
2005		5	5	10	10개 시교육청 증원 배치
2006		5	8	13	13개 군교육청 증원 배치, 2차 배치 계획 완료 연도
계	23	23	23	69	23개 지역 교육청 초·중·고교 각 1명씩 배치 완료

4. 학교도서관 교육 및 연수 강화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연수가 실시되고 있는 것도 변화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실제에 있어 학교 현장의 무관심과 무지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변화는 무척 중요한 조건의 개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경영자의 인식과 관심에 의해 학교도서관의 생사가 결정되며 존립에 좌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교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강연의 중요성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학교도서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학교 경영자와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은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이해와 인식 변화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다양한 형식의 정책 설명회는 학교 경영자들에게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 하반기에만 해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과 시·도교육청의 주관으로 초·중등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설명회가 전국에서 13회 개최되었으며 이 행사에 약 4천 여명의 교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된다.²⁶⁾ 이러한 학교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2003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교과교사와 학부모 도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병행되어 비전문 운영인력들에게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²⁷⁾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2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년도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구축·운영(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p.44.

27) 상계서.

상황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연수가 빈번하게 시행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적 지도에 따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2년부터 교원연수 운영방향에 학교도서관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하였다.²⁸⁾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교도서관의 역할,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교원의 역할, 학교도서관의 활용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도서관 관련 내용을 각종 연수에 포함시키거나 독자적인 연수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운용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다. 2002년도 교원연수 운영방향에서는 학교도서관 관련 사항이 13가지 권장 사항 중 11번째에 위치해 있었는데 2003년도 교원연수 운영방향에서는 다섯 번째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²⁹⁾ 그만큼 학교도서관 관련 사항의 연수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루게 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연수 방향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관련 연수를 많이 개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제고하게 되고 나아가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게 되는 것이다.

IV. 변화에 내재된 도전과 과제

학교도서관 현장과 관련 정책이 활성화되고 개선되는 것은 분명 희망적인 변화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바라고 기대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전 분야에 발전과 개혁의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변화에 내재된 어떤 문제나 장애물은 없는 것인가. 이 변화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내재되고 그 과정에 개입되는 문제와 장애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필자는 현재 우리 학교도서관에 불어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가 무척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변화의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과제와 장애물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어쩌면 이 과제와 장애물을 해결하지 못하면 학교도서관에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은 일시적이며 표피적인 성과만 남기고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변화의 기류는 한편으로 도전의 성격으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의 발전과 정상화를 위해서 이 도전의 성격과 정체를 밝히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럼 우리

28)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2002년도 교원연수 운영방향(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2).

29)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2003년도 교원연수 운영방향(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3).

학교도서관 앞에 놓인 도전의 내용과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자.

1.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은 바르게 가고 있는가?

현재 학교도서관 현장의 개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변화의 성과는 기본적으로 교육행정당국이 주도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의 산물임에 틀림없다. 학교도서관이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고려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성과가 더 효과적으로 축적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바란다면 정책의 방향과 한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정책이 몇 가지 있지만 가장 포괄적이며 영향력 있는 것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의 문제와 과제를 살펴본다.

현재 진행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은 중앙 교육행정당국이 가진 권한과 행정력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그 추진력과 영향력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정책의 외형적 성과와 형식적 완결성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개선과 그것을 통한 학업 성취도의 제고를 지향하는 정책의 성과는 결국 그 방향과 내용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외면적 영향력보다는 내면적 충실성을 통해 그 성과를 가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학교도서관의 환경 개선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기자재를 확보하고 정상적인 외형을 갖춘 도서관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학교도서관의 운영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와 자료를 확충하는 문제는 제외되거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현재 우리 학교도서관의 물적 환경이 지극히 열악하고 정부의 예산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향은 많은 우려를 낳게 한다. 왜냐하면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시설과 기자재가 아니라 전담 전문 운영인력이며 다양하고 충실한 교수 학습 자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험에서 이 두 요소를 확보하지 못한 학교도서관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다. 현장의 장학 담당자도 5년간 총 3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인력 정책이 빠진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다.³⁰⁾

교육인적자원부는 인력 배치의 문제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30) 김선평은 학교도서관 운영과 유지를 위해 지역 교육청별로 최소 3명-6명의 사서교사는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고 하며 점차적으로 이 인원을 배치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별 사서교사 최소인원 배치 계획을 제안한다. 이 계획대로 시행된다고 해도 겨우 6퍼센트의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는 것이다. 김선평, 전계논문, p.264.

인력 보충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과연 사서교사 배치의 문제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정말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일인가. 필자는 교육행정당국의 인식과 의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본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서교사 배치 과정을 보면 교육행정당국의 의지와 추진력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이 빠진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은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정의 면모를 나타내기도 한다. 일선학교에서는 전문인력 확보 없이 시설투자만 늘리는 예산 낭비적 요인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된다.³¹⁾ 장기적으로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중요한 요소는 제외한 채 즉각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요소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정책적 성과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장기적으로 볼 때 실속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또한 정부주도의 정책이 갖는 한 가지 한계인 획일적인 현장 적용도 이 정책의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이 처한 상황과 학교의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충되고 개선되어야 할 요소도 다를 것이다. 시설과 기자재를 완비해야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장서를 확충해야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더 급선무인 학교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원과 지도가 제공되는 것이 순리에 맞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은 그 내용이 모두 획일적이어서 개별 학교의 상황과 필요를 채워주는 효용면에서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가 학생들이나 학교가 아니라 학교도서관에 기자재와 용품을 공급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이처럼 현재 진행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정책은 다분히 행정관료적 형식 논리가 투영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전문적이며 현장지향적인 원리와 논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적 특성은 이 정책이 갖는 한계이면서

구분	광역시 이상 (초·중·고별 각 2명)								도교육청 (초·중·고별 각 1명)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소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지역 교육청수	11	6	4	4	2	2	2	31	24	17	11	15	14	22	23	20	3	149	180
1차년도 (2003년)	22	12	8	8	4	4	4	62	24	17	11	15	14	22	23	20	3	149	211
2차년도 (2004년)	22	12	8	8	4	4	4	62	24	17	11	15	14	22	23	20	3	149	211
3차년도 (2005년)	22	12	8	8	4	4	4	62	24	17	11	15	14	22	23	20	3	149	211
합계	66	36	24	24	12	12	12	186	72	51	33	45	42	66	69	60	9	447	633

31) “초중고 도서관 ‘짓고 보자?’”, 문화일보, 2002. 7. 27.

학교도서관 발전이라는 과제에 대한 도전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이 정책의 성과를 최대화하고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정책 내용과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현장지향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2. 사서교사는 충실하게 양성되고 있는가?

현재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한 핵심적인 과제는 사서교사 배치의 문제이다. 우리 학교도서관 문제의 가장 치명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주 미미한 수이긴 하지만 사서교사가 신규로 임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확대하여 사서교사 인력은 충실하게 양성되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³²⁾ 이 문제

32) 사서교사 양성 문제는 양과 질의 양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질의 측면에서만 논의한다. 양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재 양성되어 있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자 현황, 1965-2002〉

양성과정 연도	합계	4년제 대학	전문 대학	자격 연수	양성과정 연도	합계	4년제 대학	전문 대학	자격 연수
합계	12,853	5,083	2,274	3,638	1983	254	16		238
2002	685	394	291		1982	115	8		107
2001	756	370	307	79	1981	70	4		66
2000	667	300	367		1980**	235			
1999	459	230	229		1979	152			
1998	512	255	217	40	1978	128			
1997	664	340	166	158	1977	41			
1996	507	347	61	99	1976	103			
1995	651	366	138	147	1975	119			
1994	720	304	266	150	1974	46			
1993	465	309	156		1973	24			
1992	522	416	76	30	1972	0			
1991	644	356	***	288	1971	89			
1990	705	380		325	1970	109			
1989*	1,014	378		636	1969	174			
1987	413	105		308	1968	86			
1986	343	62		281	1967	276			
1985	416	72		344	1966	249			
1984	413	71		342	1965	27			

* 1988년부터 통계 데이터 수집기간이 변경되어 1988년 데이터는 1989년에 포함되었음.

** 1980년 이전에는 양성 기관별로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데이터만 제시됨.

*** 1991년 이전까지 전문대학에서 양성된 인원은 실기교사 통계에 포함되어 구체적 데이터를 알 수 없음.

를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필자 스스로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육이 사서교사를 충실하게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혐의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사서교사에 대한 인력 수요가 거의 전무했으며 이에 따라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을 충분히 편성하여 개설하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필자의 추정에 동의할 것이다. 실제 현재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에 편성된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을 조사해본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32개 4년제 문헌정보학과중 공주대와 홈페이지상에 교과과정이 제시되지 않은 3개 대학을 제외한 28개 대학 문헌정보학과의 편성 교과과정을 살펴보았다.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을 학교도서관 경영 영역, 독서지도 영역, 어린이 및 청소년 자료 영역, 교육매체론 영역 등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문헌정보학과의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목 편성 현황(2003년 6월 현재)

교과목 영역	편성 학과 수	복수 편성 현황
학교도서관 운영 일반 영역	11(6)*	· 4개 영역 편성 학교: 2개교 · 3개 영역 편성 학교: 3개교 · 2개 영역 편성 학교: 6개교 · 1개 영역 편성 학교: 11개교 · 1개 영역도 편성하지 않은 학교: 6개교
독서교육 영역	17	
어린이 및 청소년 자료 영역	6	
교육매체론 영역	3	

*괄호 안의 숫자는 학과중 관종별 도서관경영 과목에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학과.

<표 7>에 나타난 것처럼 3개 영역 이상의 교과목을 편성한 학과는 5개 학과밖에 없으며 학교도서관 경영 과목이나 독서지도 과목 같이 기초적인 교과목을 편성하지 않은 학과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편성 교과목이 모두 개설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개설 교과목은 더 적을 수 있다. 최소학점인증제 등의 시행으로 전공 교과목 편성과 개설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교육내용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서교사를 양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³⁾

실제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사서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은 무척 다양하다 할 수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1965-2002.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1965-2002.>

33) 사서교사 양성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 영역 교과목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과제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요구와 문헌정보학 교과 운영 여건을 반영한 학교도서관 분야 교과목 운영에 대한 원리와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있다. 여타 관종의 사서들과는 다른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교사로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사서교사 직무의 가장 핵심적이며 전문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독서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지도하고, 교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교수 학습 과정에 개입하고, 다양한 교수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교육 과정에 빈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와 교과과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양을 충분하게 갖추어야 사서교사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은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장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교과목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논리는 일견 정당해 보이지만 학문이 현장의 문제를 드러내어 그 개선을 자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보면 옳은 논리라고 할 수 없다. 현장이 열악하다하여 그 분야의 교육을 포기한다면 정책 당국이나 학교 현장에 대해 사서교사의 배치를 요구하는 것도 온당하지 못한 처사가 된다. 당당하게 사서교사 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실하게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현장이 조금씩 개선되고 사서교사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형성되는 지금 사서교사 양성의 충실성 문제는 우리 내부를 향한 큰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양성한 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사나 학생들로부터 그 효용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 학계와 관계의 무능함과 나태함을 드러내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필자는 실제 현장의 교사나 학교 경영자, 그리고 교육행정당국의 장학담당자들로부터 문헌정보학 교육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물론 그 중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용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아픈 곳을 찌르는 내용들이다. 요컨대 학교에서 양산한 인력을 데려다 써 보니 기대 이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개중에는 전문인력을 쓸 필요 없이 학부모나 비전공자를 채용하여 간단하게 교육한 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전적으로 우리 학계와 관계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그에 합당한 내용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역으로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³⁴⁾ 사서교사 배치라는 기회는 분명 도전의 얼굴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3. 학교도서관 비정규직 사서 문제의 해결방안은 있는가?

34) 사서교사 뿐만 아니라 사서직 전반에 대해서 이런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 내용과 제도의 모든 면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지식과 기술, 윤리, 의식, 태도를 충실하게 갖춘 사서를 양성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특히 우리 전문직 밖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 깊어진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형성되고 학교도서관 현장 개선 사업이 전개되면서 그 운영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개별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비정규직 사서를 채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채용된 비정규직 사서는 2002년 현재 전국에 걸쳐 87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다.³⁵⁾ 그러나 2003년 들어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시행에 따라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사서를 채용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1천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도서관 일과 전혀 관련 없는 그야말로 ‘잡다한’ 일에 동원되기도 한다고 한다.³⁶⁾ 요컨대 비정규추정된다.

비정규직 사서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한 가지는 이들의 신분과 처우와 관련한 문제이다. 비정규직 사서는 학교의 다른 비정규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상상 밖의 열악한 처우 속에서 신분 보장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서는 지역과 관리 주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만원을 겨우 넘는 일당을 받고 있으며 신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³⁷⁾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전문’ 사서들이 ‘일용 잡급직’으로 대우받고 고용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의 고용 형태와 신분적 한계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사서교사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교육 활동을 수행하거나 교사들과 협력 수업에 대한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사서의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리에 대한 권한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부당한 계약 조건 속에서 일해야 하고 때로는 직 사서의 신분과 권한으로는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리라는 기본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비정규직 사서체제 속에서는 학교도서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도서관 운영 능력의 비일관성 문제로 연결

35)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 활성화 대책 수립 계획 연구(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2, p.113).

36) 한 초등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는 현장 일용직 사서의 증언을 통해 비정규직 사서의 실상을 알 수 있다. ‘작년 12월에는 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2월 10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 동안) 사서가 없으니 학부모들을 번갈아 쫓아냅니다. 사실 방학이 되기 전에 무척 할 일이 많습니다. 미납 독촉장도 보내서 수거해야하고 장서 파악도 해야하며 도서실 마무리 정리도 해야하는 등 이 모든 일들이 되어 있을 리 없겠지요. 그후 다시 3월에 재고용 되었을 땐 분실된 책도 많고 미납된 책도 많고 6학년은 반납도 않고 졸업을 하는 등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서 훼손과 분실을 사서책임으로 두고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면 너무 억울합니다. (중략) 공문 그거 받아본 적 없습니다. 담당교사가 물어보지도 않고 처리하고 나중에 통보합니다. 혹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사할 게 있으면 그때서야 부탁합니다. 일을 잘해도 칭찬은 담당교사에게 돌아가더군요. 문제처리는 우리에게 돌아오구요. 말이 사서교사고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지만 아무 발언권도 없고, 급할 땐 잡일 도와주는 행정 보조로 전락합니다. ‘교무실 비었다 전화 받아라, 다른 부서의 급한 보고서 타자 좀 쳐달라, 선생님들이 논문 써야 하는데 자료 좀 찾아 달라.’ 뭐 이런 거야 봉사정신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 분수대 청소할 사람 없다. 일주일에 몇 번씩 청소해라’는 요구를 받은 한 사서분의 하소연을 듣고 기가 막히더군요.’ 상계서, pp.7-8.

37)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근로실태 및 차별해소 방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서울: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2003).

되고 나아가 학교도서관이 추구하는 표준적이며 보편적인 기능과 역할 성취에 많은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에서 전문 사서교사 배치의 임시방편으로 이러한 비정규직 인력 채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운영 인력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사서의 문제는 현단계 우리 학교도서관의 주요한 도전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 도전을 적절하게 받아넘기고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도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오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에 불어온 교육개혁의 바람은 교육 현장에 여러 가지 변화의 징후와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그러한 변화의 한 갈래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임시 형태의 변화에 따른 교육 방법 개혁과 독서 교육에 대한 인식의 확대에 따라 민간과 정부 할 것 없이 학교도서관이라는 교육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중앙 교육행정당국에 학교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생기면서 정부의 학교도서관 정책 지도력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건국 이래 최초로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의미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이 수립되어 시행되기에 이른다. 이 정책의 시행에 따라 각 학교의 도서관은 변화의 와중에 있다. 책창고로 방치되거나 자습실로 전용되는 등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던 학교도서관이 반듯하게 제 모습을 찾게 된 것이다. 시도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교도서관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임용하기도 하고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장학 활동을 강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역의 교육행정당국에서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학교경영자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만들어 학교도서관 발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현단계 우리 학교도서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주요한 단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전적으로 바람직하고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는 도전과 과제의 요소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은 만성적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 변화의 와중에서 새롭게 부각된 것이기도 하다. 이 도전과 과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학교도서관계에 불어오는 변화의 성과와 귀결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변화 속에 내재된 도전에 대해 적극적이며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정책을 비롯하여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학계나 관계에서 실천적이며 현장 지향적인 입장과 자세로 학교도서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서교사 양성의 교육 과정과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재정비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충실한 사서교사를 양성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교육내용과 방법을 수정하고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사서 문제를 비롯하여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노출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학교도서관 문제에 대해 우리 학계와 관계는 전문적인 지도력과 실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학교도서관 개선을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한 장학 담당자가 학교도서관 문제의 실체를 확인한 후 문헌정보학계에 가졌다는 분노는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부 차원의 정책 책임자,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 입안자를 향하던 분노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향해 일어났다. 해마다 무수한 제자들을 배출하면서 가장 큰 인력 시장인 보통교육의 현장을 황무지로 버려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과 반영을 실현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교수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³⁸⁾

학교도서관 문제가 구조적이며 만성적인 사회문제와 교육문제에 연결되어 있어 전문분야의 힘만으로 어쩔 수 없었던 면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소극성과 태만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도서관 문제는 시민단체나 현장의 일반 교사들과 같은 비전공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면이 있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입장에서 필자자신부터 먼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학교도서관은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이제라도 우리 전공 영역에서 정책 지도력을 확보하고 이론적 자원을 충실히 하여 학교도서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에서는 2003년 단체협약안에 학교도서관 조항을 별도로 만들고 도서구입비의 일정액 확보, 사서교사 배치, 학교도서관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등의 내용을 넣어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상에 나섰다.³⁹⁾ 이 협약안 작성에 개입한 한 교사가 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던진 한 마디는 필자를 무척 부끄럽게 하였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문헌정보학과 교수님들은 뭐합니까? 교육부에 성명서라도 하나 내지 않고.”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38) 김선평, 전계논문, p.261.

3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 교원노동-서울시교육청 2003 단체협약안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 2003)